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10 일, 현지시간) 오후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戰) 과정에 대한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감안할 때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간의 그간 협력을 기반으로 방산, 반도체 협력 및 항공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멜로니 총리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에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참석해 양국 방산협력 논의를 진

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탈리아가 내년도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사입장국 간 단합이 중요한 시점에서 앞으로도 한국이 G7에 계속 참여해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류가 약 20년 전 처음 소개됐던 이탈리아가 이제는 유럽 내 한류 거점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화 선진국이자 훌륭한 관광자원을 갖춘 이탈리아와의 문화교류가 계속 확대되어 양국 국민 간의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내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포함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광수/기자

경제안보 및 항공 우주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경기도,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다들자! 파주페스타' 열어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9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다들자! 파주페스타'를 개최한다.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예술체험, 미래교육체험, 버스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영국의 '라이마을'을 모델로 건축한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를 경기도민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방문객을 위한 마술쇼, 에어바운스, 영어뮤지컬 ▲도예, 공예, 쿠키만들기, 자원순환, 캘리그라피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길거리 예술체험 프로그램 ▲메이커 교육, 원어인 홈베이킹 교육, K-POP 댄스 수업, 세계문화체험 등 파주캠퍼스의 기존 미래교육 및 글로벌 교육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신청해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등 세부 사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는 도민의 공간이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시설로 이번 행사에 많은 도민이 방문하여 문화와 여가의 기회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북도, 추석 명절 맞이 물가안정 관리'총력'

유관기관 합동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열어 분야별 대응 방안 논의

경북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4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명절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농·축·수산물에 비롯한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세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는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0대 성수품을 비롯한 핵심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계획이다.

또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축 물량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농축산물 특판 행사와 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수산물 상생 할인행사"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9.13~9.27)를 추

진하고, 전통시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 운영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배달앱 '먹깨비' 특별 할인 이벤트와 추석 명절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을 및 구매 한도 상향도 함께 추진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최근 잇따라 내린 집중호우에 태풍까지 겹쳐 농수산물 수급 불안으로 도민들의 물가 상승 체감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방안을 모색해 추석 명절 물가안정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청정수소산업 중심지 도약 위한 협의체 출범

전라남도가 11일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전남 수소산업 발전 협의체'를 출범, 국가 청정수소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전남 수소산업 발전 협의체는 포스코홀딩스, 효성, 한양, GS칼텍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20여 수소 관련 기관·기업 등의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수소전문기업 육성 방안, 탄소포집 및 저장·활용시설(CCS) 기반 청정수소 생산 방안, 전남 청정수소 개발 전략 등 수소산업과 관련

된 다양한 주제와 현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분기별 수소산업 관련 2개 내외 주제를 정해 집중 토론한다. 이를 통해 전남 수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신규 국고사업 발굴 등 발전 전략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체 첫 회의는 수전해시스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수소산업 육성 추진현황을, 김수현 고등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수전해시스템 설비 성능평가센터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수소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열

린 논의를 진행했다. 각 기관들은 전남이 청정수소 선도도시 중심지로 한 걸음 더 도약하도록 지속해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은 대규모 해상풍력과 한국에너지공단 수소 전문인력 등 그린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라며 "전남 수소산업 발전 협의체가 세계적 친환경 수소 경제 허브 도시로 성장하는 촉매제로서, 수소산업 발전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정책지원관과의 소통DAY 개최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MZ세대 직원들과의 소통DAY를 가진데 이어 9월 11일에는 도의회 정책지원관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소통DAY를 개최했다.

이날 소통DAY는 지난 8월 18일 신규 임용된 15명의 정책지원관을 포함 정책지원 6개팀 30명이 참석하여 입법 정책 추진과정과 의정활동 지원 등에 대해 배한철 의장과의 격이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소통DAY는 2024년 예산안 심사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정책지원관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경청하고 위로와 격려를 함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

지난 8월 신규 임용된 최희성 주무관은 “직원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 정책지원관 상호간에 협업을

입법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 등 정책지원관의 역할 당부



고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앞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한철 의장은 “정책지원관 한 분 한

분의 노고가 곧 도민들의 행복과 직결된다”면서 “정책 입안시 도의원이라는 각오로 도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책지원관의 전문 지식 습득과 능력 함양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의 맞춤형 교육을 수시로 제공하여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지원관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채용,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8월 18일에 15명이 신규 임용하여 총 25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 한국쌀전업농 전라북도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 2,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쌀 전업농의 권익 신장과 농권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쌀 전업농 전라북도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8일 정읍 신태인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 쌀전업농 전북회원대회에서 박순성 회장이 김 의원에게 전업농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은 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평소 농업인들의 소독중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것으로 김 의원은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전북 농업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신동진비 공공비축미 매입제안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발의하여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지역농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동구 의원은 “열악한 농업·농촌 환경 속에서도 지역 농업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 쌀전업농 전북도연합회 회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북도의회로서 전업농의 권익신장과 농권 보호를 위해 도의원으로서는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송우현 부산시의원, 부산시민 디지털 문해력 강화 위한 조례 개정 나서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 삶의 주체로 활동하는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게 될 것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부산시민의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개정에 나섰다.

2022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부산지역 청소년의 스마트폰 첫 이용 연령대가 급격히 낮아지고 디지털기기 사용은 급증하는 데 반해, 정보판별 능력은 낮은 실정이다. 한편,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는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70세 이상의 동영상이

7월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사회 속 청소년이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8월 24일에는 의원연구단체 '부산역(부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에서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는 의뢰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부산시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 중·장년층 특화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나 연인원 40명이었으며, 예산도 3천만원 수준으로 부산시민 전체 대상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며 말했다. “연령대별 정보 획득 경로나 매체 활용의 격차가 존재하고 디지털 기기 이용에 있어 올바르게 사용하고, 정보분별력을 키우기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라며 “ChatGPT와 같은 초거대 AI 등장 및 변화하는 미래 사회 반영을 위해 디지털시민성 함양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 “무기한 갱신도 가능한 지하도상가 입찰제 개정안, 엄청난 사유화 우려”

임규호 의원이 “서울시 지하도 상가 입찰 제도와 관리 방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9월 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에서 열린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혜를 주는 조례가 아닌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정법인이 영구적으로 관리 운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유화하는 것”이라면서, “계약 갱신의 대상이나 갱신 횟수, 조건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과 공익성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지하도상가 입찰과 관련해서는 “120%로 투찰 상한 규정이 법률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입찰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익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고, 시의회와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 25개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장으로부터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4개 상가는 공단직영 방식으로 나머지 21개 상가는 상가단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점포의 수는 2700여개에 달한다.

최광수/기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방문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리모델링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7일, 노후된 중앙도서관을 전면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을 방문했다.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은 1919년 개관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100주년을 넘은 공공도서관으로 지역의 정보제공 및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이었다.

올해 7월 리모델링돼 1~2층에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전시·관람할 수 있는 '기록전시관'과 3~4층에는 독서·평생학습·문화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먼저 리모델링 및 도서관 명칭 변경 등 재개관 추진 경과와 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1~2층의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과 더불어 대구시민의 이야기를 다룬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과 독서·교육·체험 등으로 활용되는 3~4층의 도서관 시설도 함께 점검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 시설은 기존 7개 자료실을 통합한 종합자료실이 새로 조성되고 디지털 코너·정기간행물 코너 등을 포함한 인물 자료실도 새롭게 구축됐으며, 개인용 PC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윤근수/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주용 도의원,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인구감소 대응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김주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이 9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노후시설과 유류시설의 활용범위 확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시책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찾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을 통해 인구유입의 활력을 찾고 지원정책들이 자리매김될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제정안은 오는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 편집국장:최재은 | 부회장:박유석 | 임석경 | 청소년책임보도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 등록일 2013-07-12 |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대선 (112)	문 화 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대선 (113)	부 동 산 부:대선 (117)
	경 제 부:대선 (114)	오 께 나 입 부:대선 (118)
	스 포 츠 부:대선 (115)	지 방 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진 위해 '신속한 보상' 경기도에 촉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 경기도에 적극적인 역할 당부



경기도의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은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경

에 대한 의견청취'과 관련하여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신속한 토지 보상 진행 촉구 ▲'2040년 수도권 광역 기본계획(안)'의 지역거점도시에 '광명시'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6군데 중 '광명·시흥'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역은 지구 발표 2년 이내에 보상을 실시하거나 계획을 공고한 반면, '광명·시흥'의 경우 무기한 미뤄지는 보상 일정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은행 채무 및 이자부담 가중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에 주민의 부담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경기도 구역 내 토지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구획 정리와 지장물 기본 조사를 마무리하여 빠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도권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하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도시의 공간구조 개편을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향후 거대도시가 될 예정이므로 지역거점도시에 광명시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내용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연구원 장윤배 박사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내용에서 거점 설정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병상/기자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합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위임된 경기도의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경기도 지방시대계획 수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규정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규정 △경기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설치, 구성 등에 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시용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경기도인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데 꼭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김시용 의원은 "지방자치분권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자립적 발전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균형발전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하며, 본 조례가 통과됨으로 경기도민이 어디에 살더라도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디뎠다"고 밝혔다.

또한,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정파적 계산 대신 중립적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중립을 통해 경기도의 지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목)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예정이다.

김병상/기자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건설국 과다 추경 우려, '예산반납 없도록 철저한 관리' 주문

오 의원, "건설국 1천억 원 증액,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집행 가능한지 의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1일에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1,323억 원이 증액됐으며, 그 중 건설국이 1,000억에 달한다.

오준환 의원은 "올 7월 말 기준, 갈천-가수 국지건설 사업은 사업비 집행률이 9%밖에 집행되지 않았으나 296억 원이 증액됐고, 초지-인천1국지도건설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았지만 1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며 예산 집행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사업이나 상반기 동안 운영을 전혀 하지 않은 사업들의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정부의 내년 본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것에 반해 경기도가 확장재정 편성 방침



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2023년 본예산 집행률이 10% 정도임에도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건설국은 추경예산 1,000억의 예산을 올해 남은 3개월동안 모두 집행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건설국은 증액된 사업들이 연말까지 모두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매년 감액 추경을 하는 하천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어렵게 세운 예산을 이토록 감액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하며, "내년 본예산 심의 시 하천과 예산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세세하게 살펴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고양 공릉천은 예산은 3분의 1 가량이 감액됐다"며 기존 계획대로 2025년부터 공사 착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오 의원의 질문에 박성식 하천과장은 "현재 60%까지 보상 절차가 진행됐고

되는 것은 설계 부실 및 관리감독 부재 문제는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이에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공사 추진과정에서 터널 저토피 보강 등 예측하지 못한 변수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계속 연장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사차질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범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계사, 감리사 및 책임기술자에게 부실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병상/기자



경기도, 20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6회 꿈울림 축제 열어

20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6회 꿈울림 축제'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꿈울림 축제'를 9월 20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다.

꿈울림 축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박람회'로 시작해 연 1회 열리는 행사다. 제6회 꿈울림 축제에는 학교밖 청소년, 도 내 3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센터 1개, 시군센터 31개 포함), 청소년 기관 등이 참여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될 이번 행사는 운동회와 예술제, 학교 밖 청소년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온라인 전시회)도 함께 운영된다.

운동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심을 키우고 모든 연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노래, 밴드, 댄스 등의 끼를 뽐낼 수 있는 예술제는 지난 8월 예산 심사에서 선정된 10팀이 참여할 예정으로 축제 당일 현장 공연을 통해 본선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은 9월 12일 사전 오픈을 시작해 예술제, 전시회, 선거 체험(청소년단)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품 투표(예술제, 선거 체험), 좋아요 클릭, 댓글 달기 등을 직접 참여해 학교 밖 청소년을 격려하고 공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 체험부스, 이벤트 등 부대행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도 보호자, 지도자, 관계기관 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김병상/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왕숙신도시 학교에 생존수영전용 수영장 복합화 제안

왕숙신도시 사업계획보고에서 GH에 토지이용계획 관련 질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단산1,2동,양정동)이 9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왕숙신도시 사업계획보고에서 학교 복합화를 통한 학생생존수영전용 수영장 확보를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GH에게 "경기북부 전체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생존수영 관련해 수영장이 부족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수영장 설치를 위해 애드러 빌다시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교육청에서 학교복합화를 통해 생존수영전용 수영장을 짓

자 의견이 있다. 토지이용계획 수정을 통해서 관련 부지 확보가 가능한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GH 김세용 사장은 "수영장은 의지만 있다면 지하에 넣어 도 되고, 옥상에 넣어 도 되고, 여러 방법이 있다."라며 "예산의 문제, 유지관리를 누가 할 건지 문제"임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지역 평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남양주 지역에서 그동안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활용해 왔던 '아쿠아조이 수영장', '체육문화센터 수영장'이 모두 리모델링 등으로 휴장에 들어가서 교육장 확보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듣고, 왕숙신도시, 양정역세권 등 지역 내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신설될 예정인 학교에 복합화를 통한 생존수영전용 수영장 확보를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논의해왔다.

7월 3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경영과, 교육시설과, 지역교육협력과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재 필요한 점과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계획 등을 수렴하고, 8월 24일 GH 균형발전본부 오완석 본부장과 만나 왕숙신도시에 관련 사업이 가

능한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이날 김세용 사장의 답변에 대해 "문제가 예산과 유지관리 주체의 문제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된 실무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구리남양주지역 아이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필요한 수영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밝혔다.

김병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이서영 의원은 "2012년 제정되고 2019년 한 차례 개정됐지만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임기와 해축,

회원의 권리, 금지행위, 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 포상 등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여 연합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원과 회원의 책임성과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일탈행위를 한 임원을 해축할 수 있도록 했고, 연합회의 명칭 또는 임원

과 회원의 자격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또한 회원의 임시총회 소집권을 강화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율방재단과 같이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보다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

김병상/기자

광명시, '모두를 위한 교육의 시작, 비형식 교육 : 삶·함·삶'을 주제로 평생학습 포럼 개최

오는 22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의 시작, 비형식교육 : 삶·함·삶' 주제로 '2023 광명시 평생학습 3차 포럼' 개최



광명시는 오는 22일 오후 광명시평생학습원 강당에서 '2023 광명시 평생학습 3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시작, 비형식교육 : 삶·함·삶'을 주제로 교육형식의 확장 차원에서 비형식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탐색하고자 기획됐다. 아울러 제20회 광명시 평생학습 마을축제와 연계하여 지역 내 실천적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 공감의 장으로서 마련된다.

포럼은 지역 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역 활동 사례와 함께 미래 교육의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기 위한 전문가 및 지역 활동가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이희수 교수의 기조 강연 '비형식교육 :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를 시작으로 시민 패널 4인이 참여하는 '삶의 정원에서 배움을 꽃피우다 : 개인의 배움에서 공동체 회복까지' 등 토크콘서트를 통

해 지역 내 활동 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터 내 QR 코드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행사 당일 현장 접수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광명시는 사회적 이슈 및 평생학습 정책과 연관된 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포럼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미래 교육의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교육적 문제의식과 핵심의제를 제언하고 평생학습 현장에서의 깊이 있는 담론을 위해 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광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 논의의 장을 계속해서 열어가길"이라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문화유산,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지켜야"

수원시, 11~12일 '2023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 개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문화재를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유산'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지키고 이어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 개막식에서 "문화유산 보존은 관계 부처나 전문가들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번 포럼이 세계유산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될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은 세계유산 분야를 선도하는 수원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유산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세계유산 분야 대표 행사다. 올해는 '세계유산의 활용'을 주제로 12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11일에는 한경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세계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용의 가치'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고, '세계유산의 활용(Heritage X)'을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됐다.

세션에서는 ▲세계유산과 메타버스(송영길 메타캡 대표) ▲세계유산과 사회공헌(구기항 라이프게임즈 사회공헌 총괄) ▲세계유산과 미디어(전찬일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 유수진 한국방송작가협회 다큐멘터리 작가) ▲세계유산과 사람들(김충영 수원일보 논설위원·최형국 수원시립공연단 무예 24기 전수교육담당·오선화 수원시 화성사업소 학예연구사)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2일 차(12일) 포럼은 '세계유산과 기후위기'(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헬과 교수·토르 브로스톨(Tor Brostrom) 스웨덴 올살라대학교 교수·좌용주 경상국립대학교 지질과학과 교수), '세계유산과 평화'(장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를 주제로 한 발표로 진행된다.

포럼 기간에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재)수원문화재단과 (재)수원컨벤션센터가 공동주최하는 '헤리티지 페스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수원만의 지역콘텐츠, 다양한 기업들이



세계유산을 재해석해 선보이는 특별한 팝업전시회, 이종기 작가의 세계유산 콜라보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문화유산 분야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현직 전문가들이 생생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고, 진로 상담을 해주는 '멘토링 라운지'를 운영한다. 멘

토는 기진석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학예연구사, 길지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 김남웅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실명센터 전문관, 전범환 한국문화재단 국제협력단장 등이다.

김범상/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우호도시 베트남 푸토성 당서기와 교류협력 활성화 논의



정명근 화성시장이 11일 화성시청에서 부이 민 짜우(Bui Minh Chau) 베트남 푸토성 당서기를 초청해 국제교류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푸토성 당서기를 비롯해 베트남 기업인 3명 등 14명이 참석했으며 화성시와 푸토성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양 자치단체 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것과 문화분야를 넘어 경제, 스포츠, 교육 등 교류 분야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부이 민 짜우 푸토성 당서기는 "실질적인 교류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

해 화성시와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앞으로 양 국가 발전의 중심에 화성시와 푸토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 10월 푸토성과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후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인 교류, 청소년 스포츠 친선 경기, 홈스테이 교류, 문화축제교류, 공무원 파견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우호교류를 추진해왔다.

양시현/기자

안산시, 정책연구단 활동... "다양한 공모사업 전략 대응"

안산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단을 모집해 본격적으로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연구 활동을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책연구단은 올해 초 '공모사업팀'이 신설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안산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직원들의 아이디어 및 제안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행정, 사회복지, 시설, 간호 등 다양한 직렬과 직급의 직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80% 이상이 8~9급 직원이다.

이날 활동에서는 '스마트 관광'과 '산단 브랜드'라는 공모 주제를 선정해 연

구단의 솔직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했다.

스마트관광은 ▲문화마을특구 내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공간 필요 ▲기마산철대 ▲QR 오디오북 ▲자동차 극장 등의 아이디어가, 브랜드산단과 관련해서는 ▲캐릭터 부품 디지털 전시 ▲특화산업으로의 변모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연구 모임에 참여한 직원은 "여러 직렬들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직원으로서, 시민으로서 평소 느끼고, 개선했으면 하는 아이디어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과 공모사업으로 공공분야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고양특례시 '노면 버스 정류소'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좁은 도로에 시설물 설치 없이도 정류소 위치 알려...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고양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시민 생활밀착형 버스정류소인 '노면 버스 정류소'가 8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는 경기도 내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57건의 적극 행정 사례가 제출됐다. 고양시의 노면 버스정류소 사업을 포함 12건이 본선에 진출했는데, 9월 8일 최종 심사를 통해 장려상 수상이 결정됐다.

도로 폭이 좁고 사유지가 많아 버스센터 설치가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정류장 표지판도 없는 버스 정류소가 많다. 버스 승차도 어렵고 교통사고도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시설물 설치 없이 주민과 운전자에게 버스

정류소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고민 끝에 고양시는 버스 정류소 앞 도로에 '버스 타는 곳'이라고 적힌 표시를 했다. 노면 버스 정류소는 통행에 방해되는 물체 없이 주민과 운전자에게 버스 정류소의 위치를 알릴으로써 효과적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했다.

노면 버스 정류소는 고양시 주교동 주택가 이면도로에 25개소가 시범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고양시는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 없이도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노면 버스 정류소'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추가로 176개소에 노면 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영기/기자



성남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실시

분당구 이달 25일까지 정비사업 신청 받아

성남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분당구는 영업장 폐업으로 주인 없이 무단 방치됐거나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낡은 간판, 인도와 도로변에 방치된 지주 이용간판 등 주인 없는 정비사업에 대한 신청을 9월 25

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건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도시미관과에서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해 정비된다.

분당구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14개의 낡고 위험한 간판을 정비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도 80개

의 간판을 정비한 바 있다.

한편 수정구와 중원구도 주인없이 방치된 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수정구는 상반기에는 21개를 정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22개를 신청받아 이달 중으로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원구는 올해 5월에 주인 없거나 재해 위험이 있는 간판 25개를 정비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간판에 대해 정비사업을 진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구례군, 구례학사 입사생 6명 수시 모집



전남 구례군은 구례학사 입사생을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9월 13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6명이다. 신청 자격은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교·대학원의 재학생으로 보호자가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입사 원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나 구례군청 평생교육과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군은 지원자의 학업성적 및 생활 형편 등을 평가해 입사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학사생들에게 학업 편의와 안정적인 보금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구례학사 입사생 수시 모집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군에서는 2020년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7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여 구례학사로 사용하고 있다. 군은 1인 1실 원룸 형태의 학사실 34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전제품과 가구 일체를 갖추어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성현/기자

전북도내 탄소기업, 아시아 최대 복합재료 박람회서 전북 탄소기술 알린다

상하이 복합재료 박람회 기간(9.12~14)『전라북도관』운영

전북도와 도내 탄소기업이 중국 상하이 국가회의전람센터(NECC)에서 개최되는 ‘2023 상하이 복합재료 박람회(China Composites Expo 2023, 9.12.~14.)’에 참가한다. 전라북도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탄소기업들의 기술력 및 제품을 홍보하고, 중국을 비롯한 세계 해외 시장과의 국제교류 안착을 위함이다.

전북도는 박람회에서 135제곱미터(약 41평) 규모의 전시부스『전라북도관』을 마련하고, 도내 본사 또는 사무실, 연구소 등을 둔 8개 기업을 선정해 참가한다.

『전라북도관』에는 누리호 발사체 제작에 참여한 하이브리드복합재산업(주)를 비롯한 기술력 있는 도내 기업들의 주요 제품 등을 전시하며, 기업 관계자들이 전세계 해외바이어 등을 맞이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탄소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해 도, 상해상운무역유한공사*(대표 박상윤, 前 상해한인협회장), 탄소수소융합산업연구조합 간 업무협약을 박람회 기간 13일에 상하이에서 체결한다.

업무협약서에는 전북 탄소기업의 제품 홍보·수출 사업화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기술 교류 지원,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등을 위해 세 기관이 협업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병삼 전북도 탄소바이오산업과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 및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라북도의 탄소산업 정책을 알리고, 국내 탄소기업이 세계와 소통하며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하이 복합재료 박람회는 아태지역 최대 규모의 복합소재 전문 박람회로 세계 탄소소재 산업의 최신 트렌드 파악부터 신사업 아이템 발굴, 홍보 및 판로 개척, 네트워킹 등이 가능한 최적의 국제 교류 기회다.

이남출/기자



목포시, 한국여행업협회 임원 대상 목포 관광 알리기 시동

관광자원 소개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홍보

목포시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한국관광여행업협회(KATA) 임직원을 대상으로 목포 관광자원 홍보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신규 관광 상품개발 협의 및 관광마케팅 등 상호 간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를 추진하고자 KATA 임원인 국내 인·아웃바운드 여행사 대표들을 목포로 초청했다.

행사 주요 일정은 첫째날 목포 대표 관광상품인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탑승하고 고하도 전망대 및 해상데크를 산책했으며, 둘째 날은 갯바위와 해양문화재연구소,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을 탐방한 후 삼학도크루즈를 탑승했다.

특히 5일에는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관광설명회를 진행해 목포시 주요 관광자원 및 내·외국인 인센티브 지원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목포

시 관광상품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카타, KATA)는 지난 1991년 설립됐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를 정회원으로 국내 여행사 2,000여개가 회원사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목포시와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다지며, 관광객 유치에 적극 협업체계를 이뤄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여행업협회와 공동관광마케팅 등 상호간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이번 팸투어를 통해 대규모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글로벌 낭만항구 목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화순군, 김장 채소 파종·정식 후 관리 철저 당부

적기 웃거름, 병해충 사전 방제로 고품질 김장 채소 재배

화순군은 무와 배추 등 김장용 채소 안정생산을 위해 파종·정식 후 초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와 배추는 가을의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전년 대비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올해는 일주일 정도 늦어져 가을무 파종 적기는 8월 중순~하순, 가을배추 정식 적기는 9월 상순이다.

무는 파종 후 본잎이 3~4장 나왔을 때 솎아 주고, 무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복 주기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웃거름은 2회 정도 나누어 주며 1회는 파종 후 20일, 2회는 1회 웃거름 후 15일이 지나서 주면 된다.

배추는 초기생육이 왕성해 추기 결구가 좋으므로 양질의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충분히 주어야 한다. 웃거름은 정식 후 15일 간격으로 3회 정도 나누어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아울러 배추는 90~95%가 수분으로 특히 결구가 시작되는 때 많은 수분이 요구된다. 토양이 건조하면 석회 결핍증과 같은 생리장해가 발생하고 구가 작아지므로 철저한 물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무와 배추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로는 무름병, 무사마귀병이 있다. 연작·다습·해충에 의한 상처가 요인으로 2~3년간 다른 작물로 돌려짓기하는 것이 좋으며,

물 빠짐이 나쁜 토양에는 재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배추좀나방, 벼룩잎벌레 등의 총해는 어린잎을 갇아 먹거나 즙액을 빨아 먹는 등의 피해를 주로 주기적인 예찰이 필요하며, 적기에 등록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품질 김장 채소 생산을 위해서는 적기 비료 주기, 예방적 병해충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기상 및 생육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현장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강진 푸소 '더 건강하고 더 맛있게' 어린이·청소년 메뉴 및 식단개발 중간보고

강진군 농어촌개발추진단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지난 4일 강진푸소협동조합 조합원 및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푸소 활용 어린이·청소년 메뉴 및 식단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액션그룹으로 활동 중인 강진푸소협동조합은 농가민박과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결합한 강진군 대표 생활 관광상품인 ‘푸소(FU-SO)’ 운영자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연구용역은 푸소를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동시에 건강도 챙기는 메뉴 및 식단개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계절별·행사별 대표메뉴 개발, 푸소 체험메뉴 개발, 로컬 푸드의 밀키트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수행기관인 송원대 박연옥 교수의 설명을 중심으로 푸소농

가 및 어린이·청소년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중심요리, 부찬, 체험메뉴 등 지금까지의 결과물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영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장은 “푸소농가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있으면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식단개발을 위해 진행중인 연구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 감사하다”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앞으로도 푸소의 발전과 성장에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19년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조직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액션그룹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윤호/기자



장흥군, 통합의학박람회 자원봉사자 한마음 활약

장흥군은 14일까지 진행되는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에 315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치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장 안내,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관람객 편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통합의학컨설팅센터 주제관 및 테마별 체험관을 중심으로 관람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고 행사장내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자원봉사자 수칙을 교육받고, 박람회장 곳곳에서 질서 유지와 원활한 축제 진

행을 돕고 있다.

한 자원봉사자는 “장흥군민으로서 우리군을 알리고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힘을 보탬 수 있어 보람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면서 “박람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봉사에 임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박람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재원/기자



신안군 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회, 장학재단에 장학금 8백만 원 기탁



신안군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문고회 회원들은 지난 7일 신안군청을 방문하여 신안군장학재단에 각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새마을부녀회는 329명, 새마을문고회는 220명의 회원들 각 읍면에 두고 있으며, 신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사회단체이다.

김영자 회장은 “부녀회에서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회원들에게 인재 육성을 위해 조금씩 모아보자고 제안했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어 감사하다”라며, “기탁한 장학금은 인재 육성에 값지게 사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화자 회장은 “문고회에서 인재 양성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연초에는 화장지, 김장철에는 새우젓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모았다”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우량 이사장은 “부녀회, 문고회 회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모아주시는 장학금을 기탁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의미가 깊다”라며, “우리 지역의 어려운 학생과 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경북도, SK에코플랜트 경주에 3,300억 투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생산시설 건립

2028년까지 경주 강동면에 3,300억 원 투자, 3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경북도와 경주시가 SK그룹의 ESG 경영과 친환경사업의 핵심인 SK에코플랜트의 국내 첫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유치에 성공하며 경상북도 동해안벨트를 잇는 이차전지 산업 집적화에 나선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8일 경북도청 사립실에서 SK에코플랜트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도의원,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SK에코플랜트는 경주 강동면 일원에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3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신설하고 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공장은 환경·에너지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SK에코플랜트가 국내에서 건설하는 최초의 공장이며,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 선점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는 전초 기지가 될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경주 공장은 양극재 스크랩과 사용후 이차전지를 파쇄해 블랙파우더를 만들고 니켈, 망간, 리튬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리사이클링의 모

든 공정을 갖추게 된다.

이 공장을 시작으로 향후 포항-경주를 연결하는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해 사용후 배터리에서 회수한 유가금속을 배터리 제조에 다시 투입하는 완결적 순환체계(Closed-Loop)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사용후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을 위해 기술 내재화와 전 세계 주요 거점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고 있다.

자회사 테스(TESS-amm) 등을 통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산업 요충지에 거점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SK에코플랜트-에코프로-테스(TESS)간 유럽 시장 선점을 위한 MOU를 체결해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SK에코플랜트 박경일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SK에코플랜트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배터리 재활용 기술 확보에 앞장서고 더불어 이번 경주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설립을 통해 국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SK그룹은 SK머티리얼즈를 비롯해 SK바이오사이언스, SK실트론, SK스페셜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투자처로 경상북도를 선택했다”라며, “이번 투자는 SK그룹의 첫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분야의 투자인 만큼 성심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한민국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 경북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빅데이터특강으로 디지털 선도도시로 도약한다

'대구 5대 신산업 시리즈' 빅데이터 교육! 혁신 교육의 장 이어 나가

대구광역시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을 맞아 미래 50년을 구상할 유능한 공직자 양성을 위해 '공무원 혁신역량 교육'을 올해 처음 기획했다. 지난 3월 '도심항공교통(UAM)', 4월 '반도체', 5월 '대구국제유지개발페스티벌(DIMF)' 특별 강연, 6월 '로봇'에 이어 9월에는 '빅데이터'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다.

이번 강연은 국내 최고의 딥러닝(Deep Learning) 전문가 불리는 김용대 서울대 교수를 초빙해 '대구의 미래, 빅데이터 산업 글로벌 동향과 대응(부제: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로 승부하라)'을 주제로 9월 13일(수) 오후 4시 30분에 산격시장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대구광역시는 5대 신산업의 하나로 ABB를 선정하고, ABB의 핵심 분야인 빅데이터(Big data) 산업을 육성해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구현,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공공분야 확대, 새로운 디지털 행정수요 대응체계 마련 등 디지털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2조 2천억 원 규모의 ABB 분야 8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고, 비수도권 최대 SW기업 집적지인 '수성알파시티'가 과기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변화를 읽고, 대구광역시가 디지털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고민해보고자 마련됐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광역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 구축의 일환으로 수성알파시티 고도화와 단계적 확장을 통해 ABB 산업의 성장 공간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직원들이 ABB 산업의 핵심 분야인 빅데이터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과 전문성 강화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아킨우미 아데시나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 접견

9.12. 17:30 부산 개최 제7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참석 계기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만나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 이 오 늘(12일) 오후 5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아킨우미 아데시나(Akinwumi Adesin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와 만나 부산시와의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아데시나 총재는 제7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참석 계기로 부산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날 박형준 시장과 만났다.

아데시나 총재는 부산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부산에서 개최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및 제6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급회의에 참석하면서 부산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또한, 이 장관급회의에서 부산기업이 참여하는 '부산형 드론 활용 시스템 구

축사업'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최종 승인됐으며, 이후 튀니지에서 드론을 이용한 농업 생산성 향상 관련 시범사업을 부산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아데시나 총재는 부산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부산에서 개최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및 제6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급회의에 참석하면서 부산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또한, 이 장관급회의에서 부산기업이 참여하는 '부산형 드론 활용 시스템 구

봉화군, 충렬사서 임란의병 추모제 열어

봉화군과 임란의병유족회는 12일 소천면 현동리 임란의병전적지 충렬사에서 임란의병 추모제를 거행했다.

봉화군과 임란의병유족회 주관으로 실시한 추모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봉화군 소천면 화장산 일대에서 왜군 3천 병력과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600의병의 넋을 기리고자 매년 음력 7월 28일 개최된다.

이날 추모제 행사는 임란의병유족회 및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임란의병 문화해설을 시작으로 박현국 군수의 초헌례, 김상희 의장의 아헌례, 김희문 문화원장의 종헌례 순으로 진행됐으며, 내빈 및 유족의 의총 헌화로 마무리됐다.

박현국 봉화군은 “임란의병 추모제를 통해 600의병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호국정신으로 승화시켜 나라사랑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산소카페 청송정원' 건강을 품은 관광 명소로 주목

맨발 걷기 열풍과 함께 건강과 행복의 힐링 명소로 거듭나

청송군의 관광 랜드마크 자리 잡은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올해부터는 건강을 키우는 명소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약 42,000평)의 백일홍 정원인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연간 20만 명이 찾는 정도로 꽃구경하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곳에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어 힐링 건강 명소로도 인기가 높다.

실제 지난 9월 1일 개장이후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청송정원을 맨발로 걸으며 힐링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맨발 걷기가 혈액 순환 개

척과 맨발로 걷는 체험을 하며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향후 군은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을 위해 안내입간판, 신발장 등 편의시설 설치와, 걷기 지도자를 초빙하여 맨발 걷기의 기본 자세와 주의점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관광 명소를 넘어 건강과 행복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곳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힐링의 장소로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가 '2023 영양고추 H.O.T Festival'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로 홍보 프로모션과 품질관리를 시행한다.

영양고추 H.O.T Festival 홍보프로모션은 전국 최고의 품질과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도시민들에게 사전홍보함으로써 핫 페스티벌 행사의 품격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사)한농연영양군연합회가 해마다 실시해왔다. 핫 페스티벌 행사 전 2회 가량 추진하는 프로모션은 11일 서울시 송파구 일원에서 1차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15일 행사 전 2차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 프로모션 홍보의 효과는 행사기간 중 도시소비자를 행사장으로 오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민에게 질 좋은 고추를 판매하기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행사 전과 행사기간 중 추진함으로써 영양고추의 명품화를 위하여 영양군과 함께 해나가고 있다.

이번행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엄격하게 추진하는 견고수 품질관리 교육은 최종 선정된 50여 부스운영자를 대상으로 (사)한농연 품질관리원이 직접 현장방문하여 포장 전, 후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 확인, 건조원칙 준수 작업 등의 지도를 통해 품질관리확인서 작성, 검수확인필증을 부착하고 미검수 품

“2023 영양고추 H.O.T Festival” 준비철저! 행사 품격향상을 위한 홍보프로모션과 품질관리 추진

홍보프로모션과 품질관리 추진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이 15회째 서울광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 영양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 K-contents와 더불어 영양고추의 명품화와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영양군 홍보대사'임을 잊지 말고 주식회사 영양군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통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목에 대한 행사장 반입을 철저히 제한하는 등 행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나섰다.

조호기 (사)한농연영양군연합회장은 “영양고추 홍보 프로모션은 핫 페스티벌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사전에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 행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영양군 브랜드이미지 제고 및 농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포항스마트그린산단, 안전하고 쾌적한 산단으로 거듭난다!



'23년 국비 130억원 5개 사업 추진, 이번 추경으로 도 예산 확보



포항철강산단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에너지자립화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022년 4월 선정된 포항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3개 사업을 비롯해 이번 추경으로 포항철강산단 기반 시설 강화사업,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의 도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디지털·저탄소화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포항철강산단 기반 시설 강화사업'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철강산단의 긴급복구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0억 원(국비 200억 원)이다.

올해는 힌남노에 의한 산사태 미복구 지역 응급복구공사, 산사태 위험지역 기초조사 및 침수 피해 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 산사태 위험지구 응급 복구, 배수시설 정비와 하천 인접 공장 재해 예방을 위한 차수벽 설치, 포항철강공단 지하매설물 DB 구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 환경오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130억 원(국비 85억 원)을 투입해 수위·강수 측정 장비, 대기환경

측정시스템, 지능형 CCTV, 교통환경 모니터링 장비 등을 구축하고, 관제센터·통합플랫폼을 설치해 이미 구축된 포항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선정된 포항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스마트기술을 노후산단에 적용해 제조혁신과 산단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 그린철강기반 포항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총사업비 2,992억 원, 1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는 5개 사업, 국비 130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통합 물류지원센터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 산단 내 공장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디지털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스마트제조급인력양성사업 등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도비 확보를 통해 추진할 포항철강산단 기반시설 강화사업,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2개의 사업 추진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산업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북도는 후속사업으로 저탄소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합심해 중앙부처, 국회 방문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포항철강산단의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비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후속사업도 미리 준비해 산업단지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2천만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할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착수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2024~2028년 관광정책 전략 모색

경주시가 2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관광진흥5개년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시는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동국대, 신경주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관기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관광진흥 계획은 새로운 관광 트렌드와 관광형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2024~2028년)간 추진할 관광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낼 지역관광의 청사진이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의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 내용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관광 형태, 경주만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관광시장 재활성화 위한 전략적 수립,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관광 발전 구조 계획 등을 수립한다.

착수보고회에서는 경주다움을 새롭게 구현하고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9대 전략 키워드, 지역 생태 자원 등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전략 등이 제안됐다.

또 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에 따른 복합전시(MICE) 산업을 비롯해 야간 시티투어, 봉황대뮤직스퀘어 등 야간관광 콘텐츠 활성화 전략 등이 건의됐다.

특히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신규 관광상품 발굴과 새로운 관광 정책 수립에 대한 방향 제시는 지역 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유의미한 자산이 될 전망이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와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많은 위기와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경주'로 거듭날 지역의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안동시, MZ세대 공무원과 공감&청렴소통 간부회의 개최

MZ세대 주무관이 일일 부서장이 돼 주간업무 보고

MZ세대 공무원과 함께하는 청렴 소통 캠페인 시간도 가져

일일 부서장 된 MZ세대 공무원, 시장과 직접 소통 '업무 시야 넓히고 주도적 역량 키워'



안동시가 MZ세대 공무원과 공감&청렴소통 간부회의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안동시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각 부서 MZ세대 공무원들이 일일 부서장이 되어 직접 해당 부서의 주요 현안을 안동시장에 보고·소통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통상 확대간부회의는 안동시장 주재로 주무 부서장이 주간업무계획 등을 보고하고 이를 전 직원이 TV로 공유하며 한 주의 시장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간부회의에서는 MZ세대 주무관이 부서 내 업무 전반을 파악하면서 부서의 대표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도적으로 기획해 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날 보고자로 나선 주무관들은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부서 간 현안 사항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무원 청렴

다짐 캠페인을 끝으로 회의를 마쳤다.

간부회의에 참가한 한 직원은 "부서 대표로 간부회의에 참석하게 돼 부담스러웠지만 준비하는 동안 다른 업무까지 파악할 수 있어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며 "부서장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공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일하는데 있어 큰 동기부여가 되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권기창 시장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임용된 MZ세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제공하겠다"라며 "미래 안동시정 발전의 주역으로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창의성을 극대화하며 안동시민을 위해 봉사해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참가하지 않은 다른 MZ세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두 번째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의성, 대구경북공항과 함께 물류허브로 도약한다!

경북도는 대구경북공항 개항에 맞춰 의성군에 스마트 항공물류단지를 조성해 지역의 핵심 경제권역 및 배후권역과 연계한 항공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구경북공항을 인천공항과 경쟁할 중부권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앞서 의성군에 자족가능한 직주근접형 산업·물류 복합신도시를 조성해 대구경북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공항경제권의 중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이번 용역에서는 의성 공항신도시의 핵심 권역인 항공물류단지에 초점을 맞춰 의성군을 글로벌 항공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국내 수출입 항공화물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의성군 항공물류단지의 물류 기능 극대화를 통해 대구경북공항을 중부권 항공물류 거점공항으로 육성해 인천공항으로 집중되는 항공화물의 효율적인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수출입 기업의 항공물류 비용절감을 통한 지역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및 자동차 부품 등의 신속한 물류 처리를 위한 첨단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갖춘 통합물류센터 및 자체 보안 시스템을 갖춘 상용화터미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수출입 활동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화물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성장 미래 산업인 바이오 및 농식품 등 온도에 민감한 화물의 물류 처리를 위한 스마트 콜드체인 기반의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Cool Cargo Center)의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해 충분한 항공 물동량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물류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있는 물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4차산업 기반 첨단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

축방안을 모색한다. 또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FTZ : Free Trade Zone) 지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글로벌 항공화물 특송사와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GDC : Global Distribution Center)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북도는 의성군 공항신도시에 항공물류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연계한 '항공물류 공동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캠퍼스에는 경북도, 의성군, 항공 관련 대학 및 기업이 연계해 공동실습장 및 공동물류 창고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글로벌 기업에서 채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의 대구경북공항 사전타당성 발표 이후, 의성군에 성공적인 항공물류 허브 구축을 위해 ①공항과 물류단지 간 원활한 물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진입도로 규모를 양복 4차로에서 양복 6차로로 확대 건의했으며, ②항공화물 수요도 30만 톤 이상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남영 경북도 대구경북공항본부장은 "대구경북공항 건설과 연계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는 급변하는 국제 물류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글로벌 물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기업의 노하우와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는 기업 맞춤형 물류단지조성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도시재생대학(풍기지역) 수료식 개최

풍기읍 주민 등 18명 수료...높은 지역 이해도 바탕 주민들의 도시재생역량 확인

영주시는 7일 풍기어울림활성화센터 2층 회의실에서 풍기읍 주민 등 18명을 대상으로 영주시 도시재생대학(풍기지역)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7월 6일 개강한 도시재생대학은 202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재생형) 공모를 위해 주민들의 사업에 관한 이해를 돕고 공공사업에 관한 참여방안을 공유해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자 총 8회차에 걸쳐 주 1회 운영됐다.

교육은 △오리엔테이션 및 풍기 도시재생사업의 방향 △특화재생의 특징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자원 발굴 △비전 및 단위사업 △세부사업계획 및 운영관리방안 △선진지 견학(경북 문경) △사업발표 및 수료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주민발표에는 풍기역 앞 포토존, 공연장 설치, 불빛거리, 체험 및 숙박시설 조성 등 지역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권철환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도시재생대학이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는 실제 계획으로 수립되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풍기읍 도시재생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평해 사구습지 주변 환경정비 시행

울진군 평해읍(읍장 권재욱)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평해 사구습지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평해 사구습지 생태공원은 동해안의 훼손되지 않은 해안사구와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생태공원으로서 평소에도 많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지역의 명소로 유명하다.

이번 풀베기 작업은 지역의 명소인 공원을 찾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권재욱 평해읍장은 "이번 환경정비 활동으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경관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경북도, '2023 그린바이오 산업 국제 컨퍼런스' 개최

14개 기관 간 동물용의약품 첨단산업 육성 상호협약 체결

경북도는 지난 7~8일 양일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와 함께 포스코 국제관에서 '2023 그린바이오 산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거점의 국제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린바이오로직스와 동물용의약품의 첨단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미국, 이스라엘, 중국 등 7개국 19명의 국내외 전문가, 리투아니아 리차르다스 쉴레파비치우스(Ričardas Šlepavičius) 대사,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김기연 과장을 비롯한 정부 및 지·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 세인트조지 런던대학(St George's, University of London)의 줄리언 마(Julian Ma) 교수의 기조연설로 그린바이오로직스(Green-biotics) 분과가 시작됐다.

국내 최초 식물 기반 동물용의약품 개발에 성공한 바이오엠 손은주 대표와 세계 최초로 식물을 활용한 고서병 치료제 개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받은 이스라엘 제약사 프로탈릭스(PROTALIX) 창업자인 요세프 샬티엘



등 6명의 국내외 연사들이 참여했다.

이어서 진행된 동물용의약품 및 세포배양식품 분과에서는 한국동물약품협회 김재홍 원장, 지엔티파마, 대웅팻에서 동물용의약품 분야의 첨단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으며, 엠케이바이오텍,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씨위드에서는 동물세포를 활용한 세포배양식품의 기술 발전과 공정 표준화 기술을 논의했다.

컨퍼런스 둘째 날에는 유전자 편집 기술과 그린바이오 산업이란 주제로 아이슬란드, 영국, 리투아니아, 중국의 해외 연사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방문한 리투아니아의 기관.기업과 국내 그린바이오 기업은 컨퍼런스 기간 중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국제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한 민간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이며, 인구 288만 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레이저, 바이오와 전자기기 분야에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와 바이오 분야 경제사절단 파견 등 경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넓혀가고 있어, 경북도는 지역기업과 리투아니아 기업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유럽에 진출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7일 열린 '2023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와 연계해 농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동물용의약품 분과위원회 및 투자사 등 14개 기관 간 '동물용의약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첨단기술과 융합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간 경북도는 그린바이오 및 그린백신 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식물을 활용한 동물용의약품 제조 기업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린바이오 6대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경북의 그린바이오 산업화 거점 육성과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했다"라며, "첨단기술과 융합한 그린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금정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고독사 워크숍」 개최

2023년 찾아가는 복지스쿨, 동 복지인적망 전문역량 강화 김재운 금정구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각지대 없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줄 것" 당부

부산시 금정구는 복지안전망으로 활동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찾아가는 복지팀 직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고독사 워크숍'은 16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의 순기능 확대 및 복지 안전망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스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 지속해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독사 현상의 대처 능력 향상을 예방적 접근체계를 두텁게 하고자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 고독사예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내 최초 유통물리사인 김석중 강사의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견과 고독사 예방'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고독사의 현실과 피해 ▲고독사 징후 및 예방대책 ▲케이

스별 고독사 위험에 놓인 고립 가구 대상 접근 및 대응 등 향후 우리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워크숍에 참석한 협의체 위원은 "고독사의 위험과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웃에 관한 관심과 돌봄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운 금정구청장은 "어려운 이웃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 복지 인적안전망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각지대 없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태/기자



상주시, 저출생 극복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및 슬로건' 공모전 개최

강영석 상주시장, "지방소멸/저출생·고령화 대응 좋은 정책 발굴,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공모전에 대한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해

상주시에서는 저출생문제 및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정책 슬로건을 통해 시민들에게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인구감소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자 '인구정책 및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저출생 및 고령화 극복 방안 등 상주시 인구정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주제로 한 인구정책 공모와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증가를 독려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한 인구 슬로건 공모의 두 분야로 추진된다.

접수 기간은 9월 11일(월)부터 10월 6일(금)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 참여는 상주시 홈페이지(http://sangj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이메일(linyi@korea.kr) 또는 우편(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미래정책실)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인구정책 및 슬로건은 창의성·활용성 등의 심사기준을 거쳐 11월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작(인구정책 11건, 슬로건 6건)은 상주시 인구정책 및 인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공모전이 지방소멸 및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공모전에 대한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상주시
저출생 극복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및 슬로건 공모전

공모분야 및 주제

구분	주제	시상
인구정책 공모전	상주시 인구정책과 관련된 모든분야 (저출생 및 고령화 극복, 생활인구 확보방안 등)	상주시장상 및 상금(공고문 참조)
슬로건 공모전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증가를 독려할 수 있는 내용	상주시장상 및 상금(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 2023.9.11 (월) ~ 10.6 (금)
 결과발표 | 2023.10.31 (화)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상주시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다운 가능
 제출방법 | linyi@korea.kr (전자우편)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미래정책실 (우편)
 상주시청 미래정책실 054-537-7137

김천시청 배드민턴단, 실업연맹 전국대회 단체전 우승

밀양 KB금융 실업연맹회장기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단체전 우승



김천시청 배드민턴단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밀양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2023 KB금융 실업연맹회장기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여자단체전 우승을 포함해 금1, 동1의 성적을 올렸다.

먼저, 여자단체전에서는 8강전(vs 포천시청)과 4강전(vs 영동군청)을 모두 3:0으로 이기고 올라온 결승전에서 전북은행을 꺾고 올라온 화순군청을 상대로 국가대표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3:0으로 물리치고 올해 두 번째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었다.

남자복식에서는 고성현·왕찬 조가

장성호·김동주(인천국제공항) 조에게 1세트를 가져갔지만 2, 3세트를 내리 내주며 역전패하여 결승진출에 실패했다.

시 관계자는 "좋은 성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높여준 배드민턴단에 감사하며,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104회 전국체전에서도 활약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청 배드민턴단의 이윤규, 나성승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9월 28일부터 열리는 2023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동현/기자

예천군, 일반음식점에 자외선 수저살균기 지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저로 감염병 예방

예천군은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에 자외선 수저살균기를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60m2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 살균기를 배부했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배부 업소를 제외한 전체 업소에 수저살균기를 배부할 계획이다.

자외선 수저살균기 설치로 음식점에서 함께 사용하는 수저통에 존재할 우려가 있는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과 식중독 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손님들도 안심하고 수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정은 "위생적 수저관리, 음식물 덜어먹기 등 안전

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영업주 및 이용객들도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대구 북구, 2023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대구 북구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9.15~9.17/3일간) (재)행복북구문화재단 배광식 이사장, "많은 관람객 분들이 축제장을 찾으셔서 우리의 자산 금호강에서 축제의 열정을 가슴 가득 담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해

(재)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는 대구 북구의 대표축제인 '2023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를 오는 2023년 9월 15일 ~ 17일 3일간 산격대교 하단 일원에서 "금호강이 좋다! 북구가 좋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영남의 젓줄이자 삶의 터전이며 조선시대 선비들의 선유 문화가 꽃 피었던 금호 강가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금호강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금호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바람 소리를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과 체험행사를 경험하기 위해 기획된 대구 북구의 대표축제이다.

이번 '2023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3일간 진행해오던 축제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선보인다. 우선 2일간 진행되던 기존의 축제 기간을 3일로 늘렸으며 기존 산격야영장부터 산격대교까지 약 425m였던 축제장 범위가 산격야영장부터 생태공원까지 약 587m로 범위 또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함께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진행된다. 또한 6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구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배경으로 그 시대 대표가요를 믹스매치한 스토리텔링형 아카이브 공연, 북구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축하 음악회와 드론 아트쇼 및 불꽃놀이, 금호강의 역사와 자연을 ASMR로 경험하는 주제전시관, 지역활성화와 아트문화 창출을 위한 금호리버마켓 등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체험으로 만나는 대구 북구 이야기와 대학생 청년작가의 체험형 전시, 지역 어린이가 함께하는 이색 야외전시, e-스포츠 경연대회를 개최해 청년과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함은 물론 다이나믹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3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산격대교 인근 금호강변을 따라 금호1곡부터 7곡까지 일곱빛깔의 테마를 가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금호1곡(琴湖一曲) 바람정원에서 대학생·어린이 야외전시회와 예술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금호2곡(琴湖二曲) 소리극장에서는 축제의 메인무대가 진행되는 3일 동안 화합, 열정, 추억을 테마로 한 화려한 공연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9월 15일



(금)에는 북구 개청 60주년을 기념하여 어울아트센터 상주단체 CM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팬텀싱어4 우승팀 리베란테, 미스트롯 출신의 정미애, 소프라노 이윤경,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지킬 앤 하이드의 히로인 브래드 리를, 행복북구어린이동요경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노래 숲의 아이들의 개막축하무대와 여기에 드론아트쇼와 불꽃놀이가 더해져 북구의 미래, 금호강 새시대를 밝히게 된다. 9월 16일(토)에는 토요일 밤의 열정이라는 테마로 댄스팀 'TEAM.MOVENTI', 무용팀 '아나키스트'와 함께하는 Fall in dance 공연이 열리고, 밴드 '아프리카', '윤성', KBS 국악신예대상 대상수상 경력의 '서도밴드', 지역의 인디밴드 '모노플로'와 함께하는 Fall in band 공연이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9월 17일(일)에는 대한가수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찾아가는 전 국민 희망콘서트 등이 열린다.

금호3곡(琴湖三曲) 느린심터에서는 '금호강의 누각과 정자'라는 주제로 항공 촬영한 금호강 영상전시와 금호강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동형 전시장과 함께 느린심터가 조성되며 금호4곡(琴湖四曲) 강변마을에서는 체험 흥보부스와 북구평생학습박람회도 펼쳐진다. 금호5곡(琴湖五曲) 금호장터에서는 푸드트럭, 플라마켓, 북구 지역 식당의 풍성한 장터가 열리고 금호6곡(琴湖六曲) 주민광장에서는 주민참여 버스킹과 북구 23개동 화합의 날, 우리동네 흥보부스, 치맥과 함께하는 청년 e-스포츠 경연대회가 열린다. 마지막 금호7곡(琴湖七曲) 강북(Book)낙원에서는 디지털북(책)을 핸드폰으로 직접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 오디오 북, 웹툰 체험 등으로 책과 함께 감을 그쳐 명하니 바라보는 일명 '강명'하기 좋은 공간으로 축제 찾은 시민들에게 여유와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실태 점검 추진

2028년까지 경주 강동면에 3,300억 원 투자, 3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13일부터 2달여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정책자금으로, 2023년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자금 3,250억 원과 고정금리의 직접 융자자금 280억 원 등 총 3,530억 원의 정책융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정책자금 운용 목적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원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2021 ~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업 911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도, 시군, 경제진흥원이 합동으로 자금지원 자격 유지 여부, 자금 사용의 목적 부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별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 등을 기

초로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1차 검토하고 기업의 소재지 이전 여부, 휴·폐업 여부, 대표자 및 업종 변경 사실 등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2차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목적에 따라 지원(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금 사용을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내(대출일로부터 1년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휴폐업 여부 등 기업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자금지원 원금 회수, 이자 지원 중단, 향후 융자 추천 제



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박은주 기업과장은 "필요한 자금이 필요 기업에게 적절하게 지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통해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도는 또한 지난해 대비 정책융자금 총 규모를 830억 원을 확대 운용 중인 만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금년 운용성과 분석 결과 및 경제 여건 등을 감안 하여 내년도 융자금 운용 규모, 지원 가능 사업 내용 및 이자보전을 등을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등원/기자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유통거래질서 특별 점검·단속

추석 명절 대비 농산물 품질 집중점검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표준규격 위반, 중량미달, 허위표시 등 전반적인 품질상태를 사전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전국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 데다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미리 품질 상태를 점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 믿고 팔고 믿고 찾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33개 광역도매시장 중 전남 지역에 유일한 곳으로 2001년 개장해 남종권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매는 과일은 오전 7시, 채소는 오후 2시에 시작되며 순천원에농협동조합,

순천남도청과(주), 남일청과(주) 3개 법인 별로 나눠 경매사와 100여 명의 도매상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한편, 농산물도매시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을 수거하여 주 2회 사전 농약안전성검사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장을 운영해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도 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전국의 과일과 채소 수집·분산의 중간에서 충실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순천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재해처벌법 피고소 관련 입장문 발표

9.12. 17:30 부산 개최 제7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참석 계기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만나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재해처벌법 피고소 관련 입장문 전문]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난 7월 기자회견 시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되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오늘도 제 입장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책임질 것은 지피, 지역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 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의 하자 등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교량 노후화와 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남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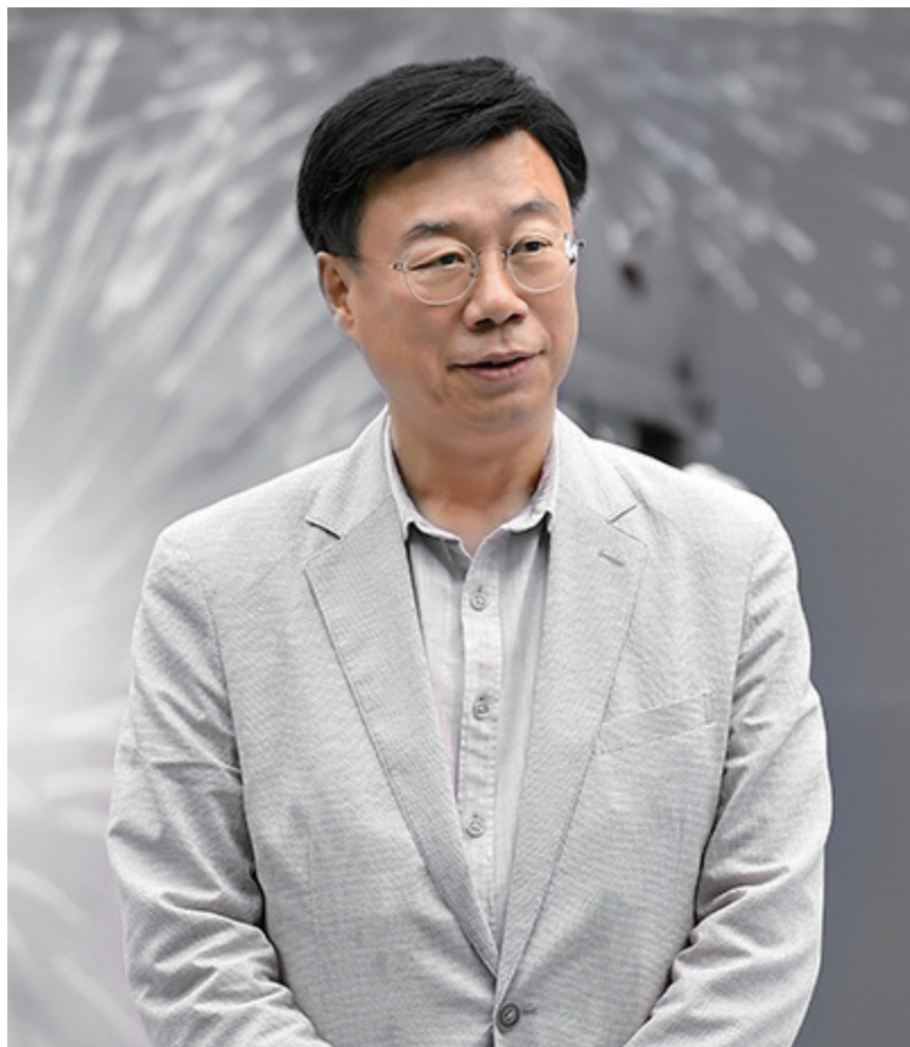
성남시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이후, 탄천 횡단 교량 18개교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4개교는 8월 31일까지 완료했고, 나머지 14개교를 9월 26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자교는 6월까지 이뤄진 현장 조사와 감식에 이어 사고 잔재물 처리가 허가되면서 8월 31일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6월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망자 유족들의 고소로 피의자로 전환된 이번에도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 유가족분들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9. 11.
성남시장 신상진



김범상/기자

속초시,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점검

추석 명절 대비 허위 과대광고 판매행위 피해 예방 및 홍보

속초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9월 15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홍보활동과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피해 예방 및 홍보활동에는 공무원과 시니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공동으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등 노인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주요 피해 예방 및 홍보활동 내용으로는 일명 '뺨다방'이라는 홍보관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

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구매 피해 사전 예방과 행동요령 설명, 정보수집,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포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어르신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 계몽 활동을 강화할은 물론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팔면 절대 속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무신고 판매 현장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등원/기자






제27회 봉화송이 한약우 축제

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빠지다.

2023.9.21(목)~9.24(일)

봉화읍 체육공원, 관내 송이산 일원

주최: 봉화군

주관: 봉화축제관광재단



강원도, 2023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바이어 21개국 매칭, 도내 중소기업 수출판로 활성화 기대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를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개최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기존 수출 국가별, 품목별로 분리되어 진행됐던 수출상담회의 한계를 보완하여 통합 개최하는데 의미가 크며, 해외 유력 바이어를 발굴하여 도내 중소기업과 1:1 맞춤 매칭과 전문 통역 등을 지원하여 수출계약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해외 바이어는 미주권(미국, 캐나다),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등 21개국 130여개사에서, 도내 기업은 식품, 뷰티, 의류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120여개사에서 참여한다.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는 먼저 9월 11일부터 3일간 온라인으로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이 중에서 계약 성사율이 높은 바이어 50개사를 11월에 개최 예정인 오프라인 수출상담회에 초청, '바이어-기업' 간 가격 경쟁력, 수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직접 만나 논의하여 실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출상담회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도내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둔포는 거대 프로젝트 주무대, 읍 승격으로 동력 키울 것"

아산시, 11월 2023 하반기 둔포면 열린간담회 개최

박경귀 아산시장은 11월 '2023 하반기 둔포면 열린간담회'에서 "면과 읍은 사업 추진 동력이 다르다"면서 "둔포는 베이벨리 메가시티 등 큰 사업의 주 무대인 만큼 단계적으로 읍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둔포농협 서부지점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박경귀 시장의 취임 후 둔포면에서 진행된 세 번째 공식 간담회로, 김희영 아산시의회의 의장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과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둔포는 아산시 17개 읍면동 중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곳"이라면서 "앞으로 충남도 베이벨리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주 무대이자 수도권권의 관문, 북부권 개발의 중심지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둔포 발전은 주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시는 특유의 단결력과 결집력이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둔포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농·배수로 정비 요청 △택시승강장 설치 요청 △아산호 쓰레기 투척 단속 강화 필요 건의 △둔포운용공원 및 둔포중앙공원 관리 요청 △둔포천 범람 방지 준설 요청 △산전리 둔사 약취 문제 등에 대해 건의하고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한 주민은 "윤보선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했는데 가족이 친일했다는 이유로 연좌로 묶여 기념사업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사당채를 해체한 지 3년이 지났는데 현재 복원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기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유족분들이 유품을 내어주셔야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 건립 타당성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최근 자체분을 만나 아산시의 입장과 의지를 전달하고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현재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태이며, 2차 3차 심사가 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타당성 평가 통과 등 제반 행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근현대사에 분명한 발자취를 남긴 우리 지역 출신의 역사적 인물인 만큼 분명한 의지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둔포면 읍 승격에 관한 질문도 많았다. 박 시장은 "둔포면은 여러 큰 사업의 주 무대가 될 예정이고, 면과 읍은 사업 추진하는 동력이 다르다. 읍은 행정 레벨이나 사책을 펼치는 데 훨씬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읍으로 승격되고 나면 행정 환경, 인원, 시설이 읍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둔포는 읍 승격을 위한 토대를 착실하게 닦아 온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산시는 2022 하반기·2023 상반기 둔포면 열린간담회에서 접수된 총 59건의 민원 및 건의사항 중 둔포면민의 날 행사 지원 확대, 백의중군길 탐방로 조성, 둔포3리 CCTV 설치, 둔포중앙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예초기 지원, 신남5리 배수로 정비 등 20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고 보고했다.

시는 관련 법안이나 예산의 제약 등의 이유로 '처리 불가' 결정된 13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추진 일정을 조율 중이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충남 중소·벤처기업 아세안 시장 개척

충남·대전·충북, 베트남 이어 인니 자카르타서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충남도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아세안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해 베트남에 이어 올해는 인도네시아로 향한다.

도는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상생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23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박람회는 대전·충남·충북이 윤번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대전에서 주관한다.

이번 박람회는 300개 사 규모의 인도네시아 유일의 종합소비재 전문 전시회인 '2023 자카르타 국제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충청권 공동홍보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기업은 '뷰티&패션', '식품', '홈&아트' 등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서 시도별 16개씩 총 48개 기업이다.

3개 시도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기업별로 13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역, 물류, 항공비를 지원하며 제품 전시회, 현지 바이어와 1대 1 비즈매칭 수출상담회, 네트워킹 행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공동홍보관에 충남의 3대 주력산업(디스플레이 부품장비·탄소저감 자동차 부품·고기능성 그린바이오)과 우수 관광지를 아세안 시장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충청권 3개 시도는 또 할랄 인증과 관련 양국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 인증기관인 인도네시아 울라마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이번 박람회가 세계 경기 악화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의 활로를 비추고,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의 역사에 걸맞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베트남에서 개최된 박람회에서 도내 기업은 현장판매와 협약체결 및 계약진행을 통해 403만 달러, 한화 약 50억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경제통상국, 신규사업 발굴 박차!

도 경제통상국, 대규모 국가재정사업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 사업 발굴 회의 개최



충북도 경제통상국은 지난 1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발굴단 회의를 개최했다. 경제통상국은 국책사업 등 대규모 국가재정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사업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사업발굴단은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을 단장으로 혁신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도 관련 부서의 팀장 등 총 18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혁신기관에서 제안한 신규사업과 추가발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제통상국은 '내륙의심' 특화

발전 특구, 양수발전소 건설 등 회의를 통해 발굴된 11건의 신규사업에 대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세수감소, 경기회복 불확실성 전망 등 향후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업, 소상공인,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국가재정사업에 체계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태백문화예술회관 비상설 영화관 9월 영화 상영

태백문화예술회관(태백시네마)에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스토리와 일상 속의 서스펜스를 늦여름 더위를 쫓을 영화 '타겟'과 '잠'을 상영한다.

'타겟'은 중고 거대 사기를 당한 '수현'이 사기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반대로 사기꾼의 표적이 돼 신상 정보가 털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9월 20일(수) 19:00, 9월 23일~9월 24일 13:00에 상영된다.

'잠'은 행복한 신혼부부 현수(이선균 분)와 수진(정유미 분)을 악몽처럼 덮친 남편 현수의 수면 중 이상행동, 잠드는 순간 시작되는 끔찍한 공포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애쓰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9월 23일(토)~9월 24일(일) 15:30, 9월 27일(수) 19:00에 상영된다.

티켓 예매는 9월 13일(수) 10시부터 네이버[태백 시네마] 또는 [디트릭스] 검색 후 온라인 예매 할 수 있다. 관람료는 일반 6,000원이며, 할인 5,000원이다. 할인대상자는 학생 및 군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온라인 예매가 어려울 경우 태백문화예술회관 사무실에서도 예매가 가능하며, 지역화폐(탄탄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배급사의 사정에 따라 영화가 변경될 수도 있다.

또한 태백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우리끼리 수요시네마'는 생활권이 같은 직장, 학교, 모임 등 단체(20명 이상)가 관람 신청하면, 신청단체 인원만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하는 프로그램으로, 9월에는 9월 20일(수)부터 9월 27일(수)에 운영된다.

유상근/기자



원강수 원주시장, 농촌지도자연합회 벼 수확 현장 방문

현장 찾아 애로사항 청취 등 농업인 격려

원주시농업기술센터가 12일 농촌지도자연합회 협회포장(흥업리 1383-2, 0.5ha)에서 벼 수확 작업을 실시했다.

농촌지도자 과제포장은 회원 간 협동심을 배양하고 선진 영농 기술 도입을 통해 과학 영농을 선도하는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수확 현장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이 직접 찾아와, 수확 철을 맞아 구슬땀을 흘리는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을 찾은 원 시장은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가가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청취로 민생을 살피는 한편, 직접 벼 수확 농기계인 콤바인을 운전하고 추수에 나서는 등 일손을 보태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원 시장은 "작은 이상기후와 기상재해 등 어려운 여건에도 힘써주시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분격적인 수확 철을 맞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농작업으로 안전사고 없이 수확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를 전했다.

김정환/기자



한국, 국제표준화기구 연료전지 기술위원회 의장국 당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중욱)은 9월 11일 우석대학교 이흥기 교수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연료전지 분과(IEC/TC 105)의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신국(프랑스) 후보와 우리나라 이흥기 교수의 2파전으로 이루어 졌으며, TC 105의 정회원 20개국 중 12개국이 유럽 국가여서 비유럽권 후보로서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

국표원은 동북아표준포럼(7.25), 한미표준협력대화(8.9) 등의 표준협력체계를 통해 우방국의 지지를 끌어냈으며, 이흥기 교수 역시 TC 105에서 15년간 오랜 활동을 통해 기여했던 점을 적극 어필한 결과 열세

예상과 달리 12대 4의 압도적인 표차로 의장에 선출됐다.

이흥기 교수는 앞으로 3년간 의장으로서 IEC/TC 105의 연료전지 기술 표준화를 총괄하게 되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래 수소 에너지의 활용에 필수적인 연료전지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게 됐다. 국표원은 국제의장-간사활동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의장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충북도, 해외바이어 초청 종합무역상담회 개최

8개국 39개사 해외 바이어초청, 대면 무역상담 주선

충북도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함께 9월 7일 목요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2023 해외바이어 초청 종합 무역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무역상담회에 중화권, 일본 및 신남방 지역 등 8개국의 소비재, 전기전자, 건축자재 분야 등 유력바이어 39개사를 초청하여 도내 중소중견기업 50개사와의 무역상담을 추진했으며, 수출상담 287건 14,156천 달러(약 189억 원), 수출계약 260건 6,550천 달러(약 87억 원)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사전에 참가기업별 수출 가능성 및 수요를 고려하여 유력 바이어를 맞춤형으로 발굴하고 상담 주선한 점이 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대면상담으로 제품을 직접 시연하며 설명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에 막대한 참여기업들의 적극적인 상담노력이 합쳐져 이와 같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충청북도 박유정 국제통상과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



도내기업들이 수출 활력 회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운영 및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오는 9월 14일 제2차 해외바이어초청 종합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도내기업의 수출 성장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정화/기자

전지보국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포항, 2050 전지보국 대시민 보고회 개최

이차전지 소재 매출액 100조 원 이상, 고용 창출 1.5만 명...세계 1위 이차전지 도시 도약 기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양극재 특화단지 선정 쾌거를 달성한 포항시가 제철보국을 넘어 전지보국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포항시는 11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50 전지보국 대 시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 국회의원,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과 김성근 포스텍 총장,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이사, 강홍식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 문충도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산·학·연·관 기관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미래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 △감사패와 표창패 전달 △2050 전지보국 대시민 보고 △전지보국 성공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 포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탤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주)에코프로, (주)포스코퓨처엠,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 손정민 팀장,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 강병우 포스텍 교수, 송원훈 포스텍 부장, 박병호 포항가속기연구소장 등 9명에게 감사패와 표창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와 공로에 감사를 전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이 제철보국에 이은 전지보국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 확신한다"며, "50만 시민과 함께 포항의 제2 도약과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권혁수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별화된 인프라, 기업투자 환경 등 포항의 우수한 산업여건과 전

국 최초 이차전지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정책 추진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고, '제철보국에 이어 전지보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2050 포항의 미래 모습'을 발표했다.

포항은 영일만산단과 블루벨리산단에 지정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혁신 거점으로 국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차전지산업 세계 주도권을 확보한다.

용수·폐수처리, 전력시설·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기반시설 조기 준공·신설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규제 특례, 세제 혜택, 산업단지 확장 등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 첫 간담회를 가진 국내 이차전지 분야 석학 및 전문가, 이차전지 선도기업들이 참여하는 전지보국 전문가TF와 함께 실무TF, 산단기반TF로 구성된 '전지보국위원회'를 출범해 특화단지 육성·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이차전지 기업 30여 개사가 원팀(One Team)을 이루는 '이차전지 기업협의회'를 10월 중 발족해 기업의 동반성장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이차전지 전문가 대토론회'에 이어 11월 '배터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국내외 이차전지 기업과 학계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열고 이차전지 선도도시 포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인다.

이와 함께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면적 최소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유도를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할 국가 투자 유치 플랫폼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100만 톤, 매출액 70조 원, 이차전지 소재 전체 매출액 100조 원 이상, 고용 창출 1.5만 명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초격차 기술개발, 전문 인력양성, 이차전지 원료·소재의 내재화를 통해 세계 1위 양극재 생산도시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포항시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에타 통과 후 세부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포항테크노파크 내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추진단을 설립하고 산하에 전문가 자문단과 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는 기업협의체도 꾸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투자 및 산학연 협업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이어 클러스터를 수소연료전지 중심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경북도와 함께 수소특화단지 지정 전략을 수립 중이다.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는 연료전지 분야 표준 선점과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수소연료전지를 비롯한 국내외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약 3,600명의 신규 일자리와 연간 265.6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타용/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위성이 촬영한 어린이들의 놀이터 모습은?

9월 19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국토위성 특별 사진전' ... 우주과학 강연·다양한 체험행사도 병행

국토위성 특별 사진전
국토위성이 촬영한 어린이들의 놀이터 모습은?
 2023년 9월 19일(화) ~ 10월 3일(화)
 용산어린이정원 이벤트하우스

본문에서 QR코드 (사진전 장려를 위해 용산어린이정원 방문예약 필수)

전시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국내외 주요 놀이동산, 축구·야구 경기장 등 총 20여점

프로그램

- 국토위성 1·2호(실제 크기 1/3) 모형 전시
- 국토위성 모형과 조화로운 우주를 주제로 한 벽화

관객 대상 서울대공원, 남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변신 위성영상 상영

만들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인공위성* 등 3D 입체모형 만들기 체험
 * 누리호, 한미안 3A호,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등 사용 인공위성 제공 활용

강연 9.19.(화) 10:00~11:30 [초등학생] 인공위성 종류, 국내·외 인공위성 현황, 국토위성 영상 활용 사례 등
 9.21.(목) 14:00~16:30 [위성 관련 전문가]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회 등

세미나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회 등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국토지리정보원 SPACE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부터 '국토위성이 촬영한 어린이들의 놀이터 모습은'을 주제로 제3회'국토위성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국토위성 1호가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의 주요 놀이공원, 축구 경기장, 유적지 등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촬영한 총 20여점의 작품과 함께 국토위성 모형 및 우주 관련 벽화가 상설 전시된다.

9월 19일에는 초등학생 20여명과 함께 인공위성 종류, 국내·외 인공위성 개발현황, 국토위성 영상의 융·복합 활용 등 인공위성에 대해 알아보는 '우주과학 강연'과 '인공위성 종이모형 만들기'를 진행하고, 참가한 어린이들에게는 사진전을 기념하는 국토위성 자수 배지를 나눠줄 예정이다.

9월 21일에는 지자체, 위성 관련 대학교 및 전문기관, 산업계 등과 함께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회 등 국토위성 영상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토위성 사진전 참여를 위해서는 방문일 기준 6일 전까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방문 예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우리나라가 공간정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토위성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련분야에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번 '국토위성 특별 사진전'을 계기로 어린이 세대가 본격적인 우주항공 시대를 이끌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제33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The 33th Gyeongbuk Sports for All Festival
 2023.9.22.(금) - 9.24.(일) 3일간
 울진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개회식 2023.9.22.(금) 17시 / 울진종합운동장 축하공연 [식전] 김용임 / [식후] 박지현 | 양지은
 ※ 개회식 참가자 전원 선물증정 및 사은품 천만원 상당 추첨

[주최] 경상북도·경상북도체육회 [주관] 울진군·울진군체육회 [후원] 대한체육회

경북교육청, 인공지능(AI)교육센터 이전 건립으로 미래교육 환경 구축

인공지능교육센터 이전 건립 추진 TF 회의 개최

경북교육청은 AI교육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AI교육을 위해 현 인공지능(AI)교육센터(의성 봉양중)의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교육의 표준! 따뜻한 경북 AI교육'을 위해 경북지역 미래인재 양성의 허브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펼칠 미래교육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봉양중학교에 설치·운영 중인 인공지능(AI)교육센터는 공간 협소(교실 2칸 규모)로 체험교육 부족 등 교육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폐교(구 금성여상)를 활용해 202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인공지능(AI)교육센터

이전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을 위해 9월부터 12월 까지 '인공지능(AI)교육센터 이전 건립 추진 TF(이하 TF)'를 구성해 국내외 자료 조사, 타 시도 센터 견학, 사전 기획용역과 설계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12월까지 TF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AI)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공간 배치·구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인공지능(AI)교육센터가 빅데이터, 챗GPT 등 미래 인공지능 사회 변화에 발맞춰 인공지능 인재 육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경북의 모든 학생들이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AI교육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 예술과 감동의 어울림, 구미 미술축제

이성희 교육장, "예술은 학생의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므로 학생들이 이번 구미미술축제를 통해 예술의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 말해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금),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구미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처음으로 구미미술축제를 개최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인재관 중강당에서 10시 30분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학생 250여명과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 등 총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축제에서는 드로잉과 공연을 결합한 드로잉쇼, 특별한 아트, 동물의 숲, 지속가능한 그린 정원을 주제로 한 아트 클래스, 아름다운 구미를 주제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드는 협동화, 도슨트와 함께하는 미술 인문학 특강,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체험부스는 구미 지역의 공방 및 학교에서 참여하여 14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다.

구미교육지원청 이성희 교육장은 "예술은 학생의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므로 학생들이 이번 구미미술축제를 통해 예술의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경북교육청, 공정한 인사(人事)가 신뢰받는 교육의 시작입니다

하반기 유·초등 인사업무담당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김천 로제니아호텔에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초등 인사업무담당 교육전문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3월과 9월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사업무의 특성상 대면 연수를 통한 상호 정보 교환이 필수적이다.

특히 인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매뉴얼과 자료를 제공해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기관별 담당자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휴·복직 처리 방법, 민원 처리 방법 등 사례를 중심으로 토의식 연수를 진행해 인사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활용한 전보, 승진, 자격 등 인사 업무 처리와 개정된 인사 법규, 성과상여금, 계약제 교원, 복무 등 인사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활용과 실무처



리 방법 안내로 인사업무 담당 교육전문직원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인사업무 담당자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창의적 아이디어 공유가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원 인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학교장과 고위공직자 청렴 책무성 높인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3일 오후 2시 온라인(ZOOM)을 통해 유치원과 각급학교(원)장, 4급 이상 고위공직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상호존중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갑질 예방 교육을 통해 학교장과 고위공직자들의 청렴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연수에는 최경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가 나와 '청렴한 리더가 행복한 조직을 만든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최 강사는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갖춰야 할 소통 기술과 다양한 갑질 사례 등을 알려준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학교장, 고위공직자들의 청렴 수준은 기관 청렴도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청렴 리더십을 강화해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상·하반기 연 2회 학교장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 전체 직원들도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김희태/기자



창과방패

고소특 공익신고

창과방패

(돈 버는 비법 지침)

문성욱 지음

문화여성

창과방패

문성욱 지음

튀김 주방大변혁

유증기 퇴출로 쾌적한 주방 환경

유해물질 99.98% 감소

식용유활성화기기 Vitalro 바이탈로 Oil Fresher

유증기 감소 효과로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

특장점

현재 운용하는 튀김기에 기존 식용유를 바이탈로 기기에 넣고 활성화시키면, 양자 에너지 생체 활성화로 식용유의 산패 및 열화방지 기능이 우수하여, 식용유의 점도가 현저히 낮아 깨끗한 튀김이 되면서 1. 결과 속이 동시에 튀겨져 튀김이 깨끗 맛있습니다. 2. 유증기 발생이 최고 99.98% 감소되어 불쾌한 냄새가 없어져 주방 환경이 청결해지고, 인체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주) Myeonjin Vitalro 명진바이탈로 한국친환경실천연구원

설치·상담 문의 **1899-9659**

A/S 및 소비자상담실 02)477-5004

금천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 '복지나눔 한마당' 개최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노고 격려 및 표창 수여

금천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9월 15일 금천구청 광장에서 '금천 복지나눔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 복지나눔 한마당'은 사회복지 종사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다.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고, 금천구 사회복지기관연합회가 후원한다.

오후 2시 행사장 무대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진행한다. 헌신적인 봉사과 투철한 소명 의식으로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회복지종사자 25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춤 공연도 펼쳐진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먹거리, 복지정보 및 체험, 바자회 부스를 운영한다. 10개 동 복지협의체가 미숫가루, 컵 과일, 족발, 샌드위치 등 다양

한 먹거리를 준비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와 봉사단체가 복지정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보완체체의사소통(ACC)을 알려주는 '우리 이렇게도 소통해요', 혈압, 당뇨, 체성분을 측정해 주는 '내 몸 체크하여 건강하게 100세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꽃꽂이 체험 '금천구와 함께하기' 등이 있다.

복지관, 자활센터, 보육원 등 사회복지기관이 의류, 생필품, 잡화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우리동네 나눔장터'도 운영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4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금천 복지나눔 한마당'을 계기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두가 행복한 금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송파구, 예비창업자 위한 첫 '창업아카데미' 개최

9월 13일, 14일 풍납동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에서 20명 대상

송파구가 오는 9월 13일, 14일 양일간 송파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창업아카데미'를 무료로 개최한다.

'창업아카데미'는 창업을 준비 중인 구민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창업에 성공하여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도록 돕고자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자리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진행한다.

교육은 총 6개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한 정보를 전한다. ▲창업 지원 제도 ▲상권인식 분석 및 활용 ▲사업계획서 이룬 및 작성 실습 ▲블로그 등 온라인 마케팅 ▲창업에 필요한 세무 ▲노무법률 정보 등 준비부터 홍보, 세무 관련 정보까지 단계별 필수 지식을 2일간 나눠 제공한다.

교육 대상자는 예비창업자, 업종전환을 앞둔 소상공인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송파구민이다. 지난달 21일부터 9월 6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했다.

구는 이번 창업아카데미 만족도를 살펴

추후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인원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수료자들에게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희망자에게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에서 1대1 경영 상담을 제공하며,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의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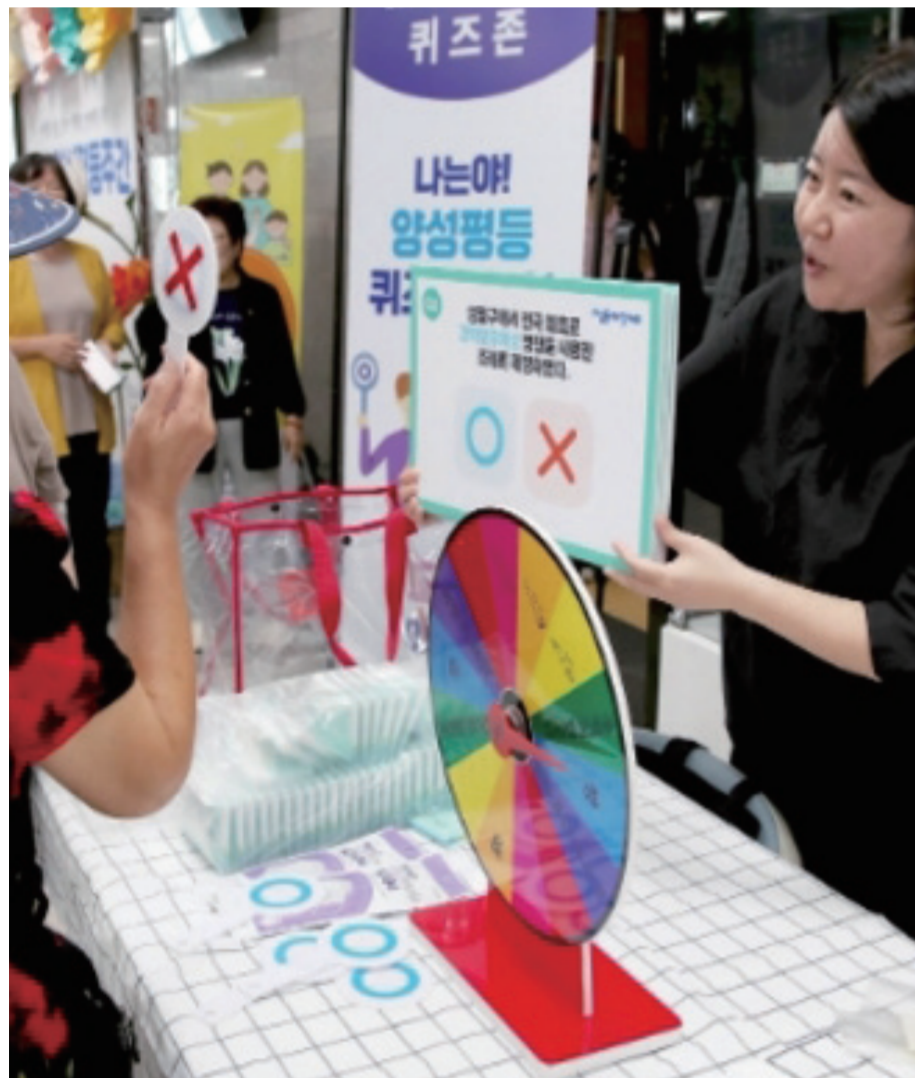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적극 돕고, 올해 대폭 확대한 '송파형 무담보 용자 지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착까지 도와 송파구에서라면 누구나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는 올해 자급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보다 44억 원 늘어난 2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용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후수/기자

성동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양성평등 가치 확산 앞장

9월 6일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 기념행사 개최



서울 성동구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지난 6일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주간은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발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촉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매년 9월 1일에서 7일을 지정한 기념주간이다.

성동구는 구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16명의 유공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이어 개그우먼 조승희가 양성평등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전문 강사의 강연도 열렸다.

특히 투망소로 이름이 알려진 개그우먼 조승희는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 웃음과 감동을 주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토크콘서트와 함께 성평등 전문강사의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젠더리스 언어 표현법'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성 고정관념 언어 표현을 성평등 언어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갔다.

현장에서 강의를 들은 주민 김 모씨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평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다양한 민간

기관의 참여로 이루어진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렸다. 성동구가족센터,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력보유여성의 영원을 담은 서예작품 전시 ▲양성평등 문구를 직접 써보는 캘리그래피 체험 ▲양성평등 퀴즈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부스로 꾸며졌다.

성동구는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해 매년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2021년 11월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 관련 조례 제정한 데 이어 돌봄 경력인정서 발급, 저소득 한부모 유급 자녀돌봄휴가 지원 등 추진했다. 이러한 성동형 정책들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양성평등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인구 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이는 결국 양성평등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라며 "성동구는 양성평등 정책 확산과 여성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GCCF 광주시문화재단 광주시

제28회 남한산성문화제

다시, 찬란한 남한산성

9.15 - 9.17 남한산성도립공원 일원

www.nsart.or.kr



15th
H.O.T **페스티벌**
 Health. Origin. Taste Festival

**영양고추는
언제나
올다!**

2023.09.18.(월) ~ 09.20.(수)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

